

불교상담개발원 소통부재로 내홍

8월 5일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 종교 토크아보기 제22회에 불교계 상담봉사자 김선희 씨가 출연했다. 김선희 씨는 "이렇게까지 올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게 됐다"며 입을 열었다.

상담개발원에 소속된 상담가가 직접 내부 문제를 언론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2009년 사무총장이 직장 내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되고 담교 스님이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화합 무드가 조성되던 불교상담개발원 이미지가 또 다시 실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선희 씨는 방송에서 "상담개발원에서 활동하던 B급사가 담교 스님의 일방적 통보로 부당하게 해임당했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해명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씨가 출연한 방송 내용에 대해 사무국은 "사실이 왜곡되고 오해된 부분이 많다. 한 쪽 의견만 듣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방송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소통의 부재가 낳은 화해의 해임이 아닌 임기만료

김성례 사무국장은 "원장 스님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글로 답하면 오해가 더 커질 것으로 봤다. 댓글 대신 만나서 직접 대화로 풀고자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후 관계자들은 7월 말 식사자리를 마련해 오해를 풀고자 했지만 7월 말 쏟아진 폭우와 원장 스님의 개인사정으로 약속이 미뤄졌고 오해는 증폭됐다.

김선희 씨는 "무시와 외면으로 전혀 소통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례 사무국장은 "무시가 아니라 좀 더 신중하고자 한 처사였다"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B급사는 임기 만료된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3개월 간 연락이 없자 연일 여부를 알고 싶었다. 감사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업무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B급사는 "감사 연일에 대한 사전 통보도 없었으며, 연임거부에 대한 사실명이 전혀 없었다. 임기만료로

통보받게 된 형식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례 사무국장은 "B급사에게 미리 연임 문제 등을 상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잘못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방송이 나간 후 19일 담교 스님과 사무국장, 지난해까지 팀장으로 활동했던 김선희 씨, B급사는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김선희 씨는 "자격증 관련한 부실 교육 및 부정 발급 등 단체장의 지도력 문제 및 사무국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해 개선안을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다.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담교 스님은 만남의 자리 이후 "와전된 부분이 많았으나 모든 오해가 풀렸으며 앞으로 소통을 위해 서로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사무총장 사건으로 와해된 단체의 내실을 다지고 있는 중이고 가시적인 부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조계종 포교원 산하기관으로 연 3000만원을 지원

받고 있다. 지원금으로는 3명의 실무자 임금으로도 부족하다. 실무자도 1명이 더 총원되어야 하나 빠듯한 예산으로 인력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상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불교상담개발원은 2009년 전사무총장이 상담원 내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 사건에 따른 해임 조치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김선희 씨는 "前 원장 정덕 스님이 사무총장을 내보내기 위해 5명과 협조하여 성희롱 사건으로 공모한 일, 현 원장 스님의 무능으로 인한 불교상담의 진로에 대하여 무대안·무소통·무대책으로 불교상담개발원의 퇴행 상태는 일련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B급사의 임기 만료 역시 비슷한 사례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 전장훈 포교팀장은 "내부의 문제를 밖에서 찾기 보다는 활동가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내부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팔정도 실천해야 평화로운 삶 가능

열린선원 법현 스님, 칠석·백중 특별정진

열린선원(원장 법현·사진)은 8월 6~14일 칠석과 백중 사이 9일간을 생사참구 주간으로 정하고 특별정진으로 회향했다.

열린선원은 8월 6일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만남의 오만가지 인연'을 주제로 견우직녀의 애절한 사랑이야기와 칠석기도의 인연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나머지 8일간 열린선원은 팔정도의 가르침을 세기며 정진기간을 갖고 14일 법현 스님의 생사참구 회향법문과 추신공양을 봉행했다.

법현 스님은 법회에서 "세상은 고통스러운데 그 원인은 집착이 묻혀있어서 그렇다. 우리는 열반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며 팔정도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 법현 스님은 하심(下心)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내 마음이 편하고 밝으면 그 곳이 정토다.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나 자신 스스로가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불교계 탈북 청소년·다문화 가정 돕기 확산

탈북 청소년 및 다문화 가정 돕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은 홀로 북한을 탈출한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마련한다. 진오 스님은 8월 24일 북한이탈 무연고청소년 그룹홈 '오뚜기집터'를 경북 구미시 지산동에 개소한다. 센터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과 공동운영하며 9~24세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24시간 돌봄체계, 학습지도, 남한생활 적응프로그램, 의료지원, 심리상담, 특기적성 지원, 취업과 자립지원 등

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회장 이현수)는 1주년 창립기념 행사로 다문화 가정 돕기 바자회 및 박제동 화백 기금 나눔전을 진행한다.

직할교구신도회는 8월 27~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및 조계사 경내에서 창립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성과 쇄신 결사와 관련한 나눔결사 실천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한 기금마련 행사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8월 28일 오후3시에는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문화공연과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박제동 화백이 기금마련을 위한 전시회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이틀간 열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계사 경내에서는 직할교구신도회 13개 사찰신도회에서 나눔 바자회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마하이주민센터에 지정 기탁할 예정이다.

이은경 기자

스님과 신부님,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꿈을 찾아주기 위해 스님과 신부, 전문직 종사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총선)은 8월 16~18일 강원도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가톨릭 산하 사회공헌 단체인 바보의 나눔과 소외계층 청소년의 꿈 찾기 '의지나눔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변호사, 교수, 요리사, 간호사 등 20여 직종의 봉사자들이 저소득가정 및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청소년을 돕고자 나섰다. 전문직 재능봉사자들은 80여 소외계층 청소년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 자존감 향상을 위한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전문직 직업군 특강인 '만나고 싶어요!' 시간에는 VG(Volunteer Generation)밴드를 비롯해 배우 안석환 씨와 여성 신약인 오은선 씨, 개그맨 조지훈 씨가 참여했다.

천진영 기자



조계종, 수해복구 물꼬뜨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스님들과 고승덕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초구 서초출),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8월 17일 서초구 우면산 전원마을 비닐하우스촌을 찾아 수해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위로금을 전하고 민원을 청취했다. 노덕현 기자

재가 의견 중단에서 받아들이나

신도단체 대중공의 교구신도회 회장단 연수

중단운영에 재가자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과 포교원(원장 혜충)은 8월

25~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청평 풍림리조트에서 신도회 신도회 회장단 연수를 개최한다.

포교원은 "사부대중 공동체의 추진을 위해 중단 집행부와 신도대표자 간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중단 33대 주요사

업인 '신도교육화 조직화'의 세부 추진 방향으로 '교구신도회 및 신도 단체 활성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중단운영의 재가 영역 구축 △사부대중 공동체의 구체적 실현 △분기별 회의 정례화 △교구신도회 조직화 구축을 목적으로 집행부와 교구신도회 회장단, 신도단체 회장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은경 기자

아시아 8개국 청소년 한국 방문

국제선센터, 국제청소년불자 템플스테이

국제선센터(주지 현호)는 8월 25~29일 국제청소년 불자대회 템플스테이(East Asia International Buddhist Youth Exchange 2011)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아시아 8개국 청소년 75명과 한국 청소년 25명이 참가해 한국불교를 배우고 사찰을 돌아본다.

EAIBY는 세계의 젊은 불자들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모임으로

2010년 대만에서 2009년에는 일본에서 개최됐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삶을 깨워라! (Now and Here, awakened life!)'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한국의 국제선센터와 태국에 본부를 둔 세계청소년불자연합이 공동 주최한다.

행사에는 아시아 8개국으로 구성된 세계청소년불자연합(The World Fellowship of Buddhist Youth) 소속 청소년을 비롯해 한국 청소년 불자로 구성된 'CLUB 25'가 참가한다. (02)2650-2200 천진영 기자

봉은사 선지식 초청법회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는 8월 21일~9월 25일 매주 일요일 10시 봉은사 법당에서 선지식초청 일요법회를 개최한다.

8월 21일 초청법회는 前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영진 스님(문경 대승사 묘적암 주석)을 시작으로 28일 대구 파계사 성전암 현운선원 선덕 일오 스님, 9월 4일 前 각하사 태백선원장 고우 스님(봉화 금봉암 주석), 9월 18일 총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해국 스님, 9월 25일 봉화 추서사 문수선원장 무어 스님 순으로 진행된다.

이은경 기자

공생선원 9월 개강



• **참선반** - 금강경 매주 화요일 (무각스님)

• **경전반** - 화엄경 매주 목요일 (정엄스님)

• **입문반** - 일상속의 수행, 신문찰요 수요일, 목요일 (무각스님)



(무각 스님)

오전 10시 30분 · 오후 7시 30분

그대 삶이 경전이다

자세한 문의는 공생선원 증무소(02-900-2448)로 해 주십시오.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층
(http://cafe.daum.net/zenmaster)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채질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범패 · 작법무 -
불교예술포럼

• 교 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포럼 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 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1년 8월 1일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1년 9월 6일 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 ◇원서교부 : 2011년 8월 1일부터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11년 9월 9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